

##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 자 립\*

서울 탐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Korean Intrusiveness Scale in Romantic Relationship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중인 228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 성인애착척도, 집착행동척도, 편집행동척도, 이성관계 만족도척도를 실시하였다. 원래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는 자신의 간섭행동을 측정하는 38문항과 파트너의 간섭행동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간섭행동과 파트너의 간섭행동의 요인이 일치하는 각 32문항을 선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통제', '과도한 애정표현', '일방적 행위' 및 '사생활 침범'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계수가 비교적 우수한 편으로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간섭행동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성인애착척도, 집착행동척도, 편집행동척도, 그리고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련성을 보였다. 아울러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KISRR), 집착행동, 편집행동, 애착, 이성관계 만족도, 신뢰도, 타당도.

---

\* 교신저자 : 정자립, 서울 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1번지 플라리스 2빌딩  
Fax : 031-716-2084, E-mail : jjl0818@hanmail.net

간섭행동(intrusive behavior)은 이성관계에서 파트너의 다양한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에 영향을 주며, 파트너의 자기경계(self-boundary)에 침범하여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등 매달리고 조정하고 비난하여 건강한 자율성(autonomy)과 근접성(proximity)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Lavy et al., 2010). 간섭행동은 이성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파트너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이성관계 유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Lavy et al., 2010).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 Theory), 관계에 대한 변증법적 논리이론(Relational Dialectics Theory) 등은 친밀하고 역동적인 대인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접성과 자율성간에 적절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Baxter & Montgomery, 1996; Bowlby, 1982; Mahler, Pine, & Bergman, 2000). 즉, 상호간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적절히 분화된 상태에서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친밀한 관계가 지속가능하다고 하였다.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 뿐 아니라 파트너의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관계에 긴장이 생기고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 중에 하나는 상대방과 융합되거나 상대방의 자율성을 구속하여 관계의 균형을 반복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다. Lavy 등(2009)은 이러한 행동을 간섭적(intrusive)이라고 하였다.

간섭행동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므로 부모-자녀관계, 이성관계, 결혼관계에서의 보살핌 등에서 간섭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간섭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간섭행동이

과잉보호(over-protective)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부모가 자녀를 실제 나이보다 어린아이로 다룸으로써 적절한 자율성을 발달 시키는데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제하고, 비난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상호관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관계(pseudo-relationship)를 맺게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간섭행동을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Barber & Harmon, 2002; Biringen, Robinson, & Emde, 2000).

부모-자녀 간 연구가 활발했던 것에 비하여 이성관계와 결혼관계에서 간섭행동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또한, 간섭행동에 대한 개념도 부모-자녀 간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공통된 개념으로 정의된 바가 없었고 임상적인 개념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Lavy(2009)가 개념적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문화적, 개인적 차이가 낭만적 관계에서의 간섭행동에 대한 지각이나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Low & Lawrence-Zunigas, 2003; Marshall, 2008)를 기반으로 이성 관계에서 간섭행동이 이루어질 때의 정서, 인지, 행동적 측면에서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성관계에서의 간섭행동에 대한 지각이나 파트너의 간섭행동에 대한 반응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간섭행동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병리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반면, 실질적인 이성관계에서의 연구는 간섭행동이 ‘스토킹’의 형태로 행해지는 ‘강박적인 관계 간섭(ORI; obsessive relational intrusiveness)’에 대한 것으로 파트너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관계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한사람의 일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폐해에 대한 것이었다(Spitzberg & Coupach, 2003). 또한, 상담사례에서 간섭행동에 대해 보고된 바가 있는데, 파트너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근접성추구행동에 집착한 나머지 대인관계의 경계를 침범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가 된 경우였다(Betchen, 2005). 한편, 결혼관계에서 나타나는 간섭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친밀한 보살핌(closeness-caregiving)과 간섭적인 것을 구분하고자 하였는데 간섭적인 행동이 좀더 병리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Werner & Green, 1998).

위에 제시된 간섭행동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간섭행동이 대부분 행동관찰(Biringen et al., 2000; Feldman, 2007)에 국한되거나 임상적 면접이나 Camberwell Family Interview(Fredma, Chambless, & Steketee, 2004)와 같이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California Inventory of Family Assessment(CIFA, Fanjoux-Cohen, Mouly-Bandini, Werner & Green, 1998)와 같이 자기보고식척도라 하더라도 간섭요인이 외의 의사소통이나 보살핌 및 친밀성 등과 변별 타당도를 확인해 본 결과, 변별이 되지 않는 요인이 포함되어있어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Lewinson & Werner, 1997; Werner, Green, Greenberg, Browne, & McKenna, 2001). 더구나 이러한 도구들은 부모-자녀관계나 결혼관계에서의 돌봄을 받거나 돌봐주는 관계에서의 간섭행동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바, 이성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자기보고식척도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에 Lavy 등 (2009)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척도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스라엘인, 미국인, 인디언 등을 대상으로 이성관계에서의 간섭적인 행동에 대해

묘사하게 한 후, 이들 중 38문항의 간섭행동을 추출하여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후, 애착과 성별에 따른 이성관계에서의 간섭행동의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Lavy, 2010) 간섭행동 척도를 사용하였고 파트너의 간섭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척도와 자신이 간섭적으로 될 때의 주관적인 경험을 알아보는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간섭행동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섭행동의 요인이 나뉘지면 간섭행동의 다양한 원인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간섭행동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의 간섭행동척도의 내용 중 '나'를 '파트너'로 '파트너'를 '나'로 바꾼 파트너 간섭행동척도의 요인분석도 실시하였는데, 본인이 지각한 것과 파트너가 지각한 것은 다를 수 있고 이성관계 연구에서 자신과 파트너 모두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면 cross-check가 가능하여, 비교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간섭행동과 애착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주로 일어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 바, 간섭행동과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Pistole, 1994). 애착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성관계에서 파트너가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을 유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안수준이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과도하게 각성되어 매달리는 간섭 행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파트너의 자율성 유지를 위한 행동을 자신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반면, 애착회피수준이 높으면 자기 신뢰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 파트너와 거리두기를 하였다. 이는 파트너의 친밀감의 요구와

대립되는 행동으로 애착불안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간섭행동을 적게 하는 결과를 보였다(Feeney, 1999, Lavy, 2010). 집착행동 및 편집행동과 간섭행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집착과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양미선, 2009,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집착행동은 파트너에게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의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거나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외로움이나 불완전감에서 벗어나 완전감이나 충만감을 유지하고자, 파트너에게 몰입되어 과민해진 심리적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관계 유지의 부정적 표현양식으로 이해하였던 바, 간섭행동과 개념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다. 편집행동과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나 편집증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애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기 표상과 타인표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것이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대인관계문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었다(김지영, 2002; 이훈진, 2002). 특히, 편집증의 특징 중 의심 및 예민성은 간섭행동의 정의와 중복되는 바가 있으며,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관계 만족도와 간섭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유기도식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유기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이설아, 2009). 간섭행동도 상대방에게 조정하고 매달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근접성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섭행동은 부모-자녀관계에서부터 이성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생애 초기 대인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성인기 이성관계에 영향을 주는 애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집착행동, 편집행동은 구성개념에서 간섭행동과 중복되며 모두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간섭행동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알아보는 것은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섭행동과 성차에 관한 연구에서(Lavy et al., 2010) 근접성 추구에 대한 동기는 여성에게 더 많고, 자율성 추구에 대한 동기는 남성에게 더 많기 때문에(Schmitt, 2008) 남성이 여성을 좀 더 간섭적으로 지각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간섭행동과 성차의 연구가 미미하였던 것과 달리 집착행동과 이성관계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집착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우아미 등, 2008). 이는 여성이 타인 의존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특성이 강하여 타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감이 상승하여 더욱 매달리고 사랑을 확인하고자 집착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Josephs et al., 1992).

간섭행동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감시하고 자기경계에 침범하여 부적절한 요구를 하고 매달리고 조정하고 비난하는 등 건강한 자율성과 근접성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고 상처를 줘

서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Lavy et al., 2010). 따라서 상담이나 임상장면에서 문제시 되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자녀 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이성관계나 결혼관계에서 간섭행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더구나 기존 연구에서는 행동관찰이나 임상면접 및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기 보고식으로 개발된 척도도 변별 타당도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에 Lavy 등(2009)이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및 척도의 개발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도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성관계에서의 간섭행동에 대한 연구나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애착, 집착행동, 편집행동,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및 경남 소재 대학에 다니는 남녀 대학생 228명(남자133명, 여자 95명)으로 평균 연령 범위는 24-27세였다. 교제기간은 3개월 미만은 39명, 3-6개월 미만은 26명, 6개월-1년 미만은 41명, 1년-1년 6개월 미만은 25명, 1년 6개월-2년 미만은 38명, 2년-3년 미만은 24명, 3년 이상은 35명이

었다. 교제 경험은 최초 교제가 3명, 1-2회가 84명, 3-4회가 98명, 5-6회가 24명, 7-8회가 9명, 9-10회가 2명, 10회 이상이 8명이었다.

### 측정도구

#### 간섭 행동 척도

간섭행동척도는 Lavy 등(2009)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이성교제중인 278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이성관계에서 간섭적으로 행동했던 경험과 파트너가 간섭적인 행동을 할 때에 대하여 이야기 하게 한 후,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관하여 묘사하게 하였다. 총 727개의 항목 중, 중복되는 내용별로 분류한 후,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제거한 후, 총 38문항을 추출하였다. 7점 리커트형(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항상 그렇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섭행동이 많음을 의미하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섭척도의 타당화연구를 위하여 Lavy 등(2009)의 원 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임상심리 전문가와 번역전문가, 영어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4인의 역 번역 및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를 완성하였다. 자신간섭행동척도에서 나를 파트너로, 파트너를 나로 바꿔서 한 것이 파트너 간섭행동척도이며(예, ‘나는 파트너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다’를 ‘파트너는 나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다’로) 자신간섭행동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고 파트너간섭행동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5이었다.

#### 성인 애착 척도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등

(1998)이 개발한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ECR)를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200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기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와 '불안'을 측정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자기보고식으로 답하게 되어있으며 회피수준과 불안수준에 의해 애착 유형이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피나 불안수준에 따른 간접행동과의 관계만을 보았다. 이 척도에서 얻은 점수를 연속 변인으로 취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애착을 유형별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불안수준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7이고 회피수준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이었다.

#### 집착 행동 척도

집착행동은 우아미 등(2008)이 개발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집착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의심' 요인은 파트너의 애정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 '거부 두려움' 요인은 파트너에게 거절당하지 않을 지 불안해하는 행동, '질투심' 요인은 파트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행동, '외로움/불완전감' 요인은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과민성' 요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여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하는 것 등이다. 5점 리커트 형(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으로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집착

행동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5였다. '의심'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고 '거부 두려움'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으며, '질투심'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 '외로움/불완전감'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8, '과민성'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 편집 행동 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한 척도로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하였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형(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에 따르면, 편집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9이었다.

####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척도는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의 문항들을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결혼 전 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측정하는 7점 리커트형(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으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이성관계 만족도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한덕웅 연구에서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7이었다.

#### 절차

228명의 피험자에게 간접행동척도, 성인애

착척도, 집착행동척도, 편집행동척도, 이성관계 만족도척도를 집단으로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요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최대 우도법 방식(maximum likelihood)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요인구조

간섭행동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간섭행동척도 38문항과 파트너간섭행동 척도 38문항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 우도법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7개가 추출되었으며 scree검사 결과와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4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신간섭행동척도와 파트너간섭행동척도 2개 척도의 요인이 일치하는 4요인을 지정하여 사각회전 법(델타=0)으로 회전시켰다. 38문항 중 .3미만의 부하량을 가진 문항, 자신간섭행동척도와 파트너간섭행동척도 간 요인(요인 1은 11개, 요인 2는 4, 요인 3은 11, 요인 4는 6개씩)에 일치하지 않는 6문항이 제거되었다. 4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총 변량은 50.03%이고, 요인 1은 30.71%, 요인 2는 6.91%, 요인 3은 8.87%, 요인 4는 3.54%의 변량을 각각 설명하였다. 그 외 다른 요인에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인 것은 자기간섭척도에서는 9번 문항 하나였고, 파트너 간섭척도에서는 20번 문항과 22번 문

항이었다. 요인 1은 ‘나는 파트너가 우리 관계와 관련 없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 ‘나는 파트너가 파트너의 동성 친구나 가족과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곤 한다.’ 등의 총 1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성에 대해 자기 중심적으로 애정관계를 구축하고자하는 ‘통제’와 관련된 요인이었다. 요인 2는 ‘나는 파트너가 흥미가 없을 때도 성적인 접촉을 강요 한다’, ‘나는 파트너가 원하지 않을 때도 신체적인 접촉을 드러내서 표현 한다’ 등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너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애정표현’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요인 3은 ‘나는 파트너에 대한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나는 파트너를 무시 한다’ 등의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트너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일방적 행위’와 관련된 요인이었다. 요인 4는 ‘나는 허락 없이 파트너의 사적인 물건을 뒤적이다’, ‘나는 파트너의 사생활에 침범 한다’ 등의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트너의 사적 영역에 허락 없이 과도하게 관여하고자하는 ‘사생활 침범’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측정된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고 요인 1은 .88(파트너 요인=.88), 요인 2는 .84(.85), 요인 3은 .89(.90), 요인 4는 .87(.89)로 나타났다. 또한,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요인 간 상관은 .43-.67로 보통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 성별에 따른 차이

간섭행동척도 각 요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간

표 1. 한국판 간섭행동척도의 구조 요인분석 결과

문항요인	요인 부하량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13. 나는 파트너가 우리 관계와 관련 없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	.80(.67)			
12. 나는 파트너가 파트너의 동성친구나 가족과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곤 한다.	.77(.58)			
14. 나는 파트너의 가족이나 친구 문제에 간섭한다.	.71(.50)			
9. 나는 파트너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싶다.	.56(.58)		-.36	
10. 나는 파트너 인생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54(.46)			
26. 나는 파트너가 이성과 대화할 경우 감시한다.	.50(.81)			
27. 나는 파트너의 행동을 감시(감독)한다.	.46(.64)			
21. 나는 내가 관심 받고 싶을 때에 파트너가 바쁠 때라도 파트너를 방해하면서까지 관심 받고 싶다.	.46(.33)			
28. 나는 흡연, 음주, 약 복용과 같은 파트너의 습관들에 참견한다.	.40(.39)			
23. 나는 파트너에 대해 질투를 한다.	.39(.64)			
11. 나는 파트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한다.	.35(.46)			
16. 나는 파트너가 흥미가 없을 때도 성적인 접촉을 강요한다.		.95(.85)		
17. 나는 파트너가 원하지 않을 때도 신체적인 접촉을 드러내서 표현한다.		.95(.95)		
19. 나는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한다.		.52(.48)		
18. 나는 파트너에게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		.33(.34)		
25. 나는 파트너에 대한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77(.75)	
29. 나는 파트너를 무시한다.			.76(.74)	
32. 나는 파트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68(.58)	
30. 나는 파트너에 대한 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61(.69)	
2. 나는 파트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58(-.64)	
22. 나는 파트너의 의도나 감정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다.	(.33)	(-.33)	.57(.32)	
15. 나는 파트너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한다.			.54(.39)	
1. 나는 파트너를 따라준다.			-.54(-.60)	
24. 나는 파트너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바람을 핀다.			.52(.49)	
20. 나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활동을 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다.		(-.35)	.50(.34)	
31. 나는 파트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파트너에게 하도록 요구한다.			.45(.66)	
3. 나는 허락 없이 파트너의 사적인 물건을 뒤적이다.				.76(.80)
4. 나는 파트너의 사생활에 침범한다.				.73(.79)
5. 나는 파트너가 샤워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가 방해한다.				.73(.70)
6. 나는 파트너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다.				.63(.77)
7. 나는 성가신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				.51(.42)
8. 나는 파트너가 불편한 시간에도 아무 때나 대화하길 원한다.				.36(.38)
고유치	9.83(11.97)	2.21(2.32)	2.84(1.48)	1.13(1.22)
설명변량(%)	30.71	6.91	8.87	3.54
누적설명변량(%)	30.71	37.62	46.49	50.02
신뢰도( $\alpha$ )	.88(.88)	.84(.85)	.89(.90)	.87(.89)

주. 요인1: 통제, 요인2: 과도한 애정표현, 요인3: 일방적 행위, 요인4: 사생활 침범.  
 ( ) 파트너간섭행동척도의 부하량임.



표 2. 간섭행동 질문지의 자신의 간섭행동 척도의 요인점수와 파트너 간섭행동 척도의 요인점수의 상관계수 (n=228)

		1	2	3	4
간섭행동요인	1	1	.51**	.58**	.66**
	2	.46**	1	.67**	.62**
	3	.43**	.54**	1	.56**
	4	.64**	.51**	.42**	1

\*\* p &lt; .01

주; 대각선 아래쪽은 자기 간섭행동요인 간 상관이고 대각선 위쪽은 파트너 간섭행동요인간의 상관임

표 3. 간섭행동척도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차이

	평균(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남(n=133)	여(n=95)		
통제	27.93(10.98)	33.27(12.70)	-3.39	.001
과도한 애정표현	7.89(4.22)	6.74(4.27)	2.03	.043
일방적 행위	20.05(8.57)	22.68(10.04)	-2.13	.034
사생활 침범	14.20(6.68)	16.56(8.18)	-2.34	.017

섭행동척도의 ‘통제’(남=27.93(10.98), 여= 33.27(12.7)), ‘일방적 행위’(남=20.05(8.57), 여=22.68(10.04)), ‘사생활 침범’(남=14.2(6.68), 여=16.56(8.18))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과도한 애정표현’ 요인(남=7.89(4.22), 여=6.74(4.27))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 수렴타당도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의 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이 척도의 총점 및 각 요인점수와 성인애착척도, 집착행동척도, 편집행동척도, 이성관계 만족도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간섭행동척도와 성인애착척도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애착회피나 애착불안수준에 따라 요인간의 상관에 차이가 있었다. 애착회피수준은 자신의 간섭행동척도의 ‘과도한 애정표현’ 요인, ‘일방적 행위’ 요인과 상관을 보였다( $r=.23, p<.01, r=.41, p<.01$ ). 애착불안수준은 간섭행동척도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63, p<.01, r=.35, p<.01, r=.27, p<.01, r=.39, p<.01$ ). 간섭행동척도와 집착행동척도와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집착행동척도의 하위요인인 ‘외로움/불완전감’요인을 제외하고 간섭행동척도의 모든 요인들과 상관을 보였다. 간섭행동척도와 집착행동척도의 ‘의심’요인 간의 상관을 보면, 비교적 모든 요인에서 상관을 보였다( $r=.73, p<.01, r=.45,$

표 4. 간섭행동척도와 애착, 집착 행동, 편집,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 계수(n=228)

	자신간섭행동척도				총점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애착 회피 수준	.01	.23**	.41**	-.01	.16*
애착 불안 수준	.63**	.35**	.27**	.39**	.56**
집착행동 1 요인 (의심)	.73**	.45**	.46**	.55**	.73**
집착행동 2 요인 (거부/두려움)	.56**	.48**	.58**	.38**	.63**
집착행동 3 요인 (질투심)	.70**	.25**	.24**	.38**	.55**
집착행동 4 요인 (외로움/불완전감)	.40**	.17**	-.14*	.28**	.27**
집착행동 5 요인 (과민성)	.65**	.24**	.14*	.39**	.51**
편집 행동 척도	.26**	.22**	.40**	.21**	.35**
이성관계 만족도	-.07	-.18**	-.56**	-.04	-.24**

주. 요인 1: 통제, 요인 2: 과도한 애정표현, 요인 3: 일방적 행위, 요인 4: 사생활 침범  
\*\* p< .01 \* p< .05

$p<.01$ ,  $r=.46$ ,  $p<.01$   $r=.55$ ,  $p<.01$ ). 간섭행동척도와 집착행동척도의 ‘거부두려움’ 요인 간의 상관을 보면, 모든 요인에서 상관을 보였다( $r=.56$ ,  $p<.01$ ,  $r=.48$ ,  $p<.01$ ,  $r=.58$ ,  $p<.01$   $r=.38$ ,  $p<.01$ ). 간섭행동척도와 집착행동척도의 ‘질투심’ 요인과의 상관을 보면, 모든 요인에서 상관을 보였다( $r=.70$ ,  $p<.01$ ,  $r=.25$ ,  $p<.01$ ,  $r=.24$ ,  $p<.01$   $r=.38$ ,  $p<.01$ ). 간섭행동척도와 집착행동척도의 ‘외로움/불완전감’ 요인과의 상관을 보면, 자신간섭행동의 ‘통제’, ‘과도한 애정표현’, ‘사생활 침범’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요인 3, ‘일방적 행위’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r=.40$ ,  $p<.01$ ,  $r=.17$ ,  $p<.01$ ,  $r=-.14$ ,  $p<.01$   $r=.28$ ,  $p<.01$ ). 간섭

행동척도와 집착행동척도의 ‘과민성’ 요인과의 상관을 보면, 모든 요인과 상관을 보였다( $r=.65$ ,  $p<.01$ ,  $r=.24$ ,  $p<.01$ ,  $r=.14$ ,  $p<.01$   $r=.39$ ,  $p<.01$ ). 간섭행동척도와 편집행동척도와의 상관을 보면, 모든 요인에서 상관을 보였다( $r=.26$ ,  $p<.01$ ,  $r=.22$ ,  $p<.01$ ,  $r=.40$ ,  $p<.01$   $r=.21$ ,  $p<.01$ ). 간섭행동척도와 이성관계 만족도척도와의 상관을 보면, ‘과도한 애정표현’, ‘일방적 행위’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8$ ,  $p<.01$ ,  $r=-.56$ ,  $p<.01$ ).

변별타당도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가 집착행동

표 5. 간섭행동척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t$	$R^2$	$\Delta R^2$	$\Delta F$
이성관계 만족도	편집성향	-.22	-3.45***	.050		11.90***
	일방적 행위	-.56	-9.18***	.310	.259	84.18***
	사생활침범	.23	3.95***	.355	.045	15.61***
	통제	.12	1.59	.362	.007	2.54
	과도한애정표현	.08	1.20	.366	.004	1.43
이성관계 만족도	집착행동 4요인	.46	7.78***	.212	.212	60.52***
	집착행동 2요인	-.50	-9.68***	.444	.232	93.65***
	집착행동 5요인	.08	1.12	.447	.003	1.25
	집착행동 1요인	-.10	-1.24	.451	.004	1.54
	집착행동 3요인	-.05	-0.61	.452	.001	0.37
	일방적 행위	-.34	-5.01***	.508	.056	25.1***
	사생활침범	.81	1.36	.512	.004	1.85
	과도한애정표현	.06	0.89	.514	.002	0.76
	통제	.01	0.13	.514	.000	0.02

\*\*\*  $p < .001$ 

척도, 편집 행동척도에 비해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이성관계 만족도를 편집행동척도가 설명하는 것 외에(5%) 간섭행동 척도의 ‘일방적 행위’, ‘사생활 침범’ 요인이 30.5%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였다.

또한, 집착행동척도의 5가지요인이 45.2%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5.6%를 간섭행동척도의 일방적 행위, 요인이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Lavy 등(2009)이 이성관계에서 간섭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간섭행동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4요인은 ‘통제’, ‘과도한 애정표현’, ‘일방적 행위’, ‘사생활 침범’ 등 이었다. ‘통제’ 요인은 이성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애정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고 ‘과도한 애정표현’ 요인은 파트너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애정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일방적 행위’ 요인은 파트너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고 ‘사생활 침범’ 요인은 파트너의 사적 영역에 허락 없이 과도하게 관여하고자하는 행동에 대한 것이었다. 간섭행동척도의 신뢰도확인결과, 내적 일관성은 .93이었고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alpha$ )는 .84에서 .89정도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이 입증되었다.

성인애착척도와와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수준에 따라 요인간의 상관에 차이가 있었다. 애착불안수준과 간섭행동척도의 모든 요인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나 애착회피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통제’와 ‘사생활 침범’요인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과도한 애정표현’, ‘일방적 행동’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애착불안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애착회피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간섭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애착회피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간섭행동의 모든 요인과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의 일부만 지지하는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를 하지 않거나 사생활침범을 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애착회피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반면, 애정표현을 잘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애착회피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추후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집착행동척도와와의 상관을 보면, 집착행동척도의 ‘의심’, ‘거부두려움’, ‘질투심’, ‘과민성’ 요인과 자신간섭행동척도의 모든 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집착행동의 ‘의심’, ‘질투심’, ‘외로움/불완전감’, ‘과민성’ 요인과

간섭행동의 ‘통제’요인이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질투심이나 의심이 많은 과민한 상태인 사람이 불완전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성관계에서 파트너를 과다하게 통제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집착행동의 ‘거부/두려움’ 요인과 간섭행동의 ‘일방적 행위’ 요인이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집착행동척도의 ‘외로움/불완전감’ 요인과 자신간섭행동척도의 ‘일방적 행위’ 요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방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외로움이나 불완전감이 감소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의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편집행동척도와와는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상관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는 피해망상집단이 애착불안수준이 높고 애착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이 간섭행동을 많이 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이며 간섭행동이 병리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점이라고 하겠다(이훈진, 2002; Lavy et al., 2010).

이성관계 만족도척도와와는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과도한 애정표현’, ‘일방적 행위’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과도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과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통제’ 요인과 ‘사생활 침범’ 요인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에 대한 위계

적인 회귀분석을 해보았는데 편집행동척도와 집착행동척도가 이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것 외에 간섭행동척도의 각 요인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바가 있었다. 이 결과는 간섭행동척도가 편집행동척도와 집착행동척도와는 독립적으로 이성관계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들임을 입증하는 결과다. 특히, 간섭행동척도의 ‘일방적 행위’ 요인이 이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간섭행동척도 각 요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간섭 행동의 ‘통제’, ‘일방적 행위’, ‘사생활 침범’ 요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보였고 ‘과도한 애정표현’ 요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보였다. 이는 근접성 추구에 대한 동기가 여성에게 높고 자율성 추구에 대한 동기는 남성에게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Schmitt, 2008). 또한 남성이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일 가능성과 함께 적극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남자답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반면, Lavy 등(2010)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바, 추후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섭행동척도는 간섭행동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검사로서 이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나 직접 관찰을 통해서만 파악하기 어려운 간섭행동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며, 실시가 간편하고 단시간 내에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담이나 임상 장면에서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알기 위한 평가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원 연구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요인을 나눠서 확인하여, 한국판 간섭행동척도의 보다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인 한국판 요인점수 계수를 사용하면 적어도 대학생 집단의 간섭행동질문지 하위 요인점수를 산출할 수 있어 연구간 비교가 가능해지고 연구자간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으며 집단 간 간섭행동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신뢰도 지수로 내적 일관성 지수만 제시하였는데, 검사-재검사신뢰도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추후, 검사-재검사신뢰도를 측정하여 검사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간섭행동에 대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고 파트너의 간섭행동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각한 것을 보고하였는데, 자신이 지각한 것과 파트너가 스스로 한 간섭행동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후, 자신과 파트너를 대상으로 모두 측정해 보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요인분석 결과 ‘일방적 행위’ 요인을 보면 1번과 2번 문항이 일방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역 채점 되었으나, 문항내용 상 파트너를 따르지 않거나 파트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이 간섭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 대학에 다니는 20대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지역이나 연령 및 학력 등에 따라 이성교제 경험의 양이나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을 망라하여 대학생이 아닌 결혼한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이나 학력 등의 다양한 변인들과 다양한 표집대상을 포함시킨 연구를 하여 일반화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의 한계로 알아보기 못하였다. 추후 좀 더 다양한 표집대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서구문화보다 우리나라가 애정표현이 간접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는 등 원척도와 의 비교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추후 필요한 요인을 추가하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간섭행동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인데, 자신의 상태를 가장하거나 왜곡하였을 때 탐지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 등에 의하여 자신의 간섭행동에 대하여 축소하여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지영 (2002).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미 발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양미선 (2009). 자기불일치, 이상형과 실제 파트너의 일치 정도 및 관계의 질이 이성 관계 집착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21-546.

이경성, 한덕웅 (2002). 결혼만족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94-295

이설아 (2009). 유기도식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91-807.

이훈진, 원호택 (1997). 편집증에 대한 인지-동기적 접근: 개관.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23-364.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 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5 (2), 85-102.

Ainsworth, M. D. S., Bec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xter, L. A., & Montgomery, B. M. (1996). *Relating: Dialogues and dialectics*. New York: Guilford Press.

Bentsen, H., Bye, B., Munkvold, O. G., Notland, T. H., Lersbryggen, A. B., Oskarsson, K. H., et al. (1996). Emotional over involvement in parent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or

- related psychosis: Demographic and clinical predictor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9, 622-630.
- Betchen, S. J. (2005). Intrusive partners-elusive mates: The pursuer-distance dynamic in couples. *New York: Routledge*.
- Biringen, Z., Robinson, J. L., & Emde, R. N. (2000).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256-270.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n.)*.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A. Simon & W. A.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ole, J. D., & Kazarian, S. S. (1988) The level of expressed emotion scale: A new measure of expressed emo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392-397.
- Deci, E. L., Schwartz, A. J., Sheinman, L., & Ryan, R. L. (1981). An instrument to assess adults' orientations toward control versus autonomy with children: Reflections on intrinsic motiv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642-650.
- Fanjoux-Cohen, L., Mouly-Bandini, A., Werner, P. D., & Green, R. J. (1998). Rethinking marital "enmeshment": Distinguishing intrusiveness from closeness-caregiving among French couples. *European Psychiatry*, 13, 46-51.
- Feeney, J. A. (1999). Issues of closeness and distance in dating relationships: Effects of sex and attachment sty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571-590.
- Feldman, R. (2007). On the origins of background emotions: From affect synchrony to symbolic expression. *Emotion*, 7, 601-611.
- Forster, J., Finlayson, S., Bentall, R., Day, J., Randall, F., Wood, P., et al. (2003). The Perceived Expressed Emotion in Staff Scale.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109-117.
- Fredman, S. J., Chambless, D. L., & Steketee, G.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observational coding system for emotional over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339-347.
- Gavazzi, S. M., Reese, M. J., & Sabatelli R. M. (1998). Conceptual development and empirical use of the Family Intrusiveness Scale. *Journal of Family Issues*, 19, 65-74.
- Holmes, J. G. (2004). The benefits of abstract functional analysis in theory construction: The case of interdependence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8, 146-155.
- Josephs, R. A., Larrick, R. P., Steele, C. M., & Nisbett, R. E. (1992). Protection the self from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risky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6-37.
- Lavy, S., Mikulincer, M., Shaver, P. R., & Gillath, O. (2009). Intrus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 imbalances between proximity and autonom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6, 989-1008.
- Lavy, S., Mikulincer, M., Shaver, P. R. (2010). Autonomy-proximity imbalance: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intrus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552-556.
- Low, S. M., & Lawrence-Zunigas, D. (2003). The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Locating culture. Malden, MA : Blackwell.
- Lewinson, M. A., & Werner, P. D. (1997). Factors in Chinese marital process: Relationships to marital adjustment. *Family Process*, 36, 43-61.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2000).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Marshall, T. C. (2008). Cultural differences in intimacy: The influence of gender-role ideology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5, 143-168.
- Miklowitz, D. J., Goldstein, M. J., & Falloon, I. R. (1983). Premorbid and symptomatic characteristics of schizophrenics from families with high and low levels of expressed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359-367.
- Pistole, M. (1994). Adult attachment styles: Some thoughts on closeness-distance struggles. *Family Process*, 33, 147-159.
- Schmitt, D. P. (2008). How ecological stressors influence dismissing orientations across genders and geographies. *Cross-cultural Research*, 42, 220-247.
- Spitzberg, B. H., & Cupach, W. R. (2003). What mad pursuit?: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 and stalking related phenomena.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8(4), 345-375.
- Werner, P. D., Green, R. J., Greenberg, J., Browne, T. L., & McKenna, T. E. (2001). Beyond enmeshment: Evidence for the independence of intrusiveness and closeness-caregiving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7, 459-471.
- 1 차원고접수 : 2012. 4. 22.  
심사통과접수 : 2012. 6. 17.  
최종원고접수 : 2012. 6. 20.



## Validity of the Korean Intrusiveness Sca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alim Jung**

Seoul Top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firm reliability and to validate the Korean Intrusiveness Scale in Romantic Relationships(KISRR). The KISRR, the Adult Attachment Scale, the Limerence Scale, the Paranoia Scale, and the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were administered to 228 undergraduate students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Intrusiveness Scale in Romantic Relationships was composed of 38 items on self intrusive behavior and 38 items on partner's intrusive behavior. By factor analysis, 32 items that self intrusive behavior and partner's intrusive behavior are correspondent were selected. 4 factors of 'controlling', 'excessive affection demonstration', 'unilateral action', 'privacy intrusion' were extracted. Cronbach  $\alpha$  coefficients of the sub-scales were reasonably high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was ascertained. The results of convergent validity showed that the KISRR and the other scales were relate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Korean Intrusiveness Scale in Romantic Relationships, limerence, paranoia, attachmen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iability, validity